www.GungPlant.co.kr
시원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진료하는
궁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조계사 앞 사거리,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앞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0-중-1905호

佛敎新聞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www.kabc.or.kr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5년 11월 2일 (2011년 / 단기 4344년 음력 10월7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764호 수

"모든 공은 여러분에게…"

무산스님, 포교대상 상금 논산 군법당 불사에 쾌척

"상 받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부끄럽게 할지 몰랐다. 오늘 상은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회향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홍포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진력한 불자들에게 수여하는 포교대상 수상자 무산스님은 수상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스님)은 지난 10월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3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상 수상자인 제3교구본사 신흥사 조실 무산스님이 직접 참석해 수상했다. 무산스님은 수상 소감에서 "아침에 출발할 때까지도 기분이 좋아 무슨 두루마기를 입고 갈지 고민할 정도였다"며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부끄럽게 할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기쁜데도 부끄러운 이유에 대해 무산스님은 "내가 잘 해서 받으면 당당하지만 공덕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만해축전 등에서 공로가 큰 인물들을 일일이 거론하고 "그들이 진정한 수상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산스님은 "오늘 상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회향한다"며 "그래야 부끄러움을 면하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마무리해 대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무산스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날 받은 상금 500만원과 함께 최근 대원상에서 수상한 1000만원 등을 보태 모두 2000만원을 육군훈련소 신축법당 불사기금으로 쾌척했다. 이밖에도 이날 포교원은 정운스님, 김윤환 씨, 서울 화계사, 반갑다 연우야 등에게 공로상을, 신공스님, 법연스님, 성불사 등에게 원력상을 각각 시상했다.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포교대상 시상식은 종단의 포교 의지와 현장의 실제 활동이 만나는 축제의 자리"라며 "우리 모두 전 세계를 불국토로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치사에서 "오늘 제23회 포교대상 수상자들이 각 분야에서 묵묵히 포교에 전념했기에 종단이 발전하고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고 치하했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공존과 평화 위해 5대 결사 동참" 호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0월27일(현지시각)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열린 '세계평화기도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세계 불교도를 대표해 세계평화기도 연설문을 낭독했다. 이날 연설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공존과 평화를 위한 생명, 평화, 문화, 나눔, 수행 결사 실천을 세계 종교지도자들에게 제안하고 동참을 호소했다. 〈차호상보〉 연합뉴스 로이터

조계종, 태국 긴급구호 나섰다

현장상황 파악위해 '선발대' 파견

본지의 '태국 홍수 사태' 보도 〈2760, 2762호〉 이후 조계종이 10월 26일 긴급구호봉사단 선발대를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 관계자는 "지난주 초부터 관계부서와 실무회의를 몇 차례 열고 우선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했다"며 "선발대를 통해 의료 및 시설 보수 등 구체적인 지원범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향후 구호활동방향을 세울 방침이다. 긴급구호봉사단 선발대는 10월31일 방콕으로 들어가 11월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올 계획이다. 사회국장 묘장스님을 단장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직원 등 총 3명이 파견될 예정이다. 당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아유타야주(州)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방콕에서 아유타야주까지 가는 길이 막혀 세부 일정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28일 현재〉

이와 더불어 본지와 조계종, 아름다운동행은 올 연말까지 태국 대홍수 피해 전면 복구를 위한 긴급재난구호기금을 모금한다. 모연된 기금은 11월6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세계불교도우의회(WFB) 방콕 세계불교도총회를 통해 1차로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모금되는 기금도 WFB를 통해 연말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태국은 50년 만의 최악의 홍수로 상류에서 불어난 물이 하류 쪽으로 서서히 밀려들어 방콕 동·북부 지역은 88개 지점이 침수된 상태다. 태국은 지난 7월25일부터 폭우와 홍수로 인해 지금까지 366명이 숨졌고, 우리 돈으로 18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협 301-0029-6115-71 예금주: 아름다운동행)

홍다영 기자

정부 대표, 기념법회 '불참' … 혜성스님 상고 '기각'

우울한 '10·27법난 31주년' 특별법 개정 필요성 더 커져

10·27법난 기념법회에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등 정부 대표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법회 다음날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법난 피해자 혜성스님(서울 도선사 회주)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필 판결이 확정된 날은 법난 31주년 기념일(10월27일)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일련의 사태에서 10·27법난의 가해자인 국가권력이 법난의 의미를 허투루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조계종 총무원과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10·27법난 31주년 기념법회를 지난 10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행했다. 10·27법난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가 1980년 10월 3만2000여 명의 군경을 동원해 전국 5300여 사찰에 무단으로 난입, 1700여 명의 스님들을 강제 연행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폭거다. 종교 교단에 저지른 초유의 만행으로, 현재 불교계는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구체적인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장 영담스님, 도선사 회주 혜성스님, 평창 월정사 부주지 원행스님 등 법난 피해자 스님들,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정부 대표는 일절 보이지 않았다. 총무원 사회부 실무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참석을 요구하는 초청장을 각각 보냈으나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비서진들이 불참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이는 법난에 필적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 3부 요인들이 매년 대거 동참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본지가 입수한 지난 5월 5·18 31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국가보훈처의 차관회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수많은 관계기관에 유공자 위문, 묘역 참배, 경호, 방송중계 등 업무협조 사항을 세세하게 요청하고 있다. 참상이 잘 알려져 있는 데다 정치적 '입지'에도 중요한 5·18민주화운동은 나서서 챙기는 반면, 상대적으로 진실이 은폐 축소된 10·27법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성의표시도 하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푸대접은 정부의 불교에 대한 관심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세계평화기도회 연설을 위한 이탈리아 아시시 방문과 관련, 출국일정이 겹쳐 기념법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총무원장 스님은 인천공항으로 떠나기 직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피해자 스님들을 면담하고, 법회 불참에 대한 양해를 구한 뒤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이튿날 또다른 비보가 전해졌다. 법난의 대표적 피해자인 서울 도선사 회주 혜성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이다.

▶2면에 계속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지면안내

불교신문이 만난 사람
우근민 제주도지사 7면

불교활성화를 위한
불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8면

박원순 서울시장 업무시작

조계사-인사동 관광벨트화 '공약'

박원순〈사진〉 야권단일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됐다. 지난 10월26일 실시된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박원순 후보는 53.4%의 득표율을 기록, 46.2%의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장으로 선출됐다.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은 10월27일 새벽 노량진 시장 방문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으며, 임기는 2014년 6월까지다.

박원순 시장은 1956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다.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01년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하고 나눔과 기부운동에 앞장섰다. 불교와 인연도 깊어, 고등학생 시절에 룸비니학생회 활동을 했으며, 2006년 만해대상과 2009년 불교인권상을 수상했다.

불교 관련 공약으로는 인사동-경복궁-조계사를 관광벨트화하고, 봉은사와 인근 명소를 함께 묶어 불교문화를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과 서울시 문화재 주변정비 계획 등이 있다.

▶관련기사 3면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10·27 국가 차원 명예회복 촉구

대불련, 성명서 발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인근)는 지난 10월26일 10·27법난 관련 '1980년 10월27일, 그날의 아픔을 되새긴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조속한 사과를 촉구했다.

대불련은 성명에서 "31주년을 맞이했음에도 여전히 법난의 진실은 자욱한 안개에 갇힌 듯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불련은 이에 "피해자 개인과 단체 등 불교계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